

재해 없는 남원시 만든다

안전대진단 실시... 위험시설물 1140곳 안전점검·안전신문고 홍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각 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와 함께 국가 안전대진단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각종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물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이 기간 중 점검대상인 1,14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5일 현재 3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는 점검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이 남원을 방문 1987년도에 설치된 춘향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재해 위험지구인 주천 배덕지구를 방문하여 호우시 상습 침수가 반복되는 재해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병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배덕지구 상습침수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남원은 대표적인 학생들 수학여행지로서 수학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봄철을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컨싱턴 리조트와 스위트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목)에는 국민안전처 안전관리기반에서 나온 전문가와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과 각 부서 담당직원들 합동으로 남원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8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이 있었다. 이날 점검에서는 각종놀이 기구의 안전성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바다 모래 두께와 주변 위험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4월 30일까지 각 부서별로 관리 중인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에는 전북도에 정밀진단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보완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전문가 12명과 공무원 254명 등 모두 376명이 1,1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1개소를 현지시정하고, 41개소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조치를 하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취한바 있다.

시는 안전 대진단 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뿐 아니라 생활 속의 안전 위해요소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safe people.kr)을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남원지역 안전과수관인 안전문화추진 남원시협의회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직접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위험시설물 신고 요령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에서는 안전신문고(앱) 가입 릴레이 운동 등을 통하여 전 시민들이 안전 신고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크고작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남원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교육전용열차'로 관광객 유치

일반 관광객·수학여행 관계자 등 250명

임실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 관광객 및 수학여행 관계자 등 250명의 관광객을 교육전용열차로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열차는 군과 도 수학여행 콜센터가 협력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및 수도권 지역 수학여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답사도 병행했다. 주요일정은 군의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체험 및

돈가스를 시식하고, 필봉농악 공연 관람, 구담마을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유망한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해 치즈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임실군은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교육적 가치가 있어 수학여행의 최적의 입지"라며, 임실지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희우 부군수는

"우리 임실군에는 성수산 옥정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교육여행에 맞는 테마형 상품들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을 비롯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열차(E-train)는 문화, 체험, 여행 모바일 앱이 결합된 교육전용 열차로 코레일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행하는 관광열차 중 하나로 연간 이용객이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사업 접수

임실군, 이달 말까지... 2만원 자부담시 12만원 '카드' 지원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의 문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바우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300만원(도비 3,690만원, 군비 8,6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중 사업년

도 기준 만 35세~만 65세 미만의 자와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0,000㎡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바우처카드 발급시 여성농업인이 2만원을 부담하면 12만원의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카드를 지원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

동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는 교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도 없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640-2411) 또는 각 읍·면사무소(소인팀)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 전업여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최로 진행되는 '지리산 800리길' 걷기 행사에 참가자들이 숲길을 걷고 있다. 남원시 제공

'고창으로 오쇼 프리마켓'

10월 29일까지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열려

고창군에서 지역 농산품과 다양한 공연 체험거리가 가득한 색다른 프리마켓이 열린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10월29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고창으로 오쇼 프리마켓'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오쇼 프리마켓'은 고창군 식도락 마을채점사업단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식도락마을로 선정된 15개 마을과 고창공동체협의회, 고창자원봉사종합센터, 고창다문화지원센터, 고창청소년문화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쇼 프리마켓'은 전라도 사투리인 '씨계씨계 오쇼'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5가지의 쇼(Show)라는 의미도 담아 '보러오쇼, 사러오쇼, 놀러오쇼, 먹러오쇼, 만들러오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각 참가마을의 상징적인 음식과 농산물, 공예품이 판매되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되어 새로운 컨셉의 프리마켓으로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주요 특산물 및 먹거리 판매를 예정이며,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및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바람직한 영유아 부모역할 돕는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 11월 말까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녀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클로버 부모교육'을 시작했다.

'클로버 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에 따라 부모교육을 진행해 영유아 자녀와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2일부터 시작된 '클로버 부모교육'은 지역 내 영유아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 11월 말까지 9개월간 지역 내 어린이집과 드림스타트강당,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소중함 나 △멋진 아이 △공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등 4가지 주제에 따라 아이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대화법 등 올바른 자녀 양육법에 대한 강의로 이뤄진다.

강의는 원광대학교 류경희 교수를 비롯해 유아교육 전문 강사 4명이 강

의형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하게 마련돼 연중 40회 이상 진행된다.

김병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육아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양육법을 습득하고 아이에게 좋은 부모, 바람직한 부모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 부모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http://childcare.gochang.go.kr) 교육일정 열람 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체험형 교육은 사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564-0862)접수 후 참여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지리산

남원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지원

남원시는 도로교통공단(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2015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협약을 통해 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연계한 원스톱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 체류 및 여행객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교부 서비스 또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기타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35사단 포병대, 덕치면 일손돕기

제35사단 포병대대는 22일 일손이 부족한 덕치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20여명의 장병들은 고품화와 이농 등으로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려 농작물 적기 파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3천여평의 면적에 복합을 심었다.

일손돕기 도움을 받은 김 모씨는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떨어져 애가 탄다"며 "포병대대 장병들의 도움으로 농사일을 적기에 할 수 있어 풍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운암면, 옥녀동천 환경정화

임실군 운암면은 세계물의 날을 맞아 옥정호 수질보존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옥녀동천(지방하천) 9.8km 수변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 삼진강림관리단(단장 나봉길), 운암면, 7287부대 제2대대병력, 운암초·송학생, 삼진강지킴이 등 5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생활쓰레기 등 1.5t량 3대 분량을 수거했다.

한편, 이날 수거된 재활용품은 판매해 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